

# 青春의 사랑

청춘의 사랑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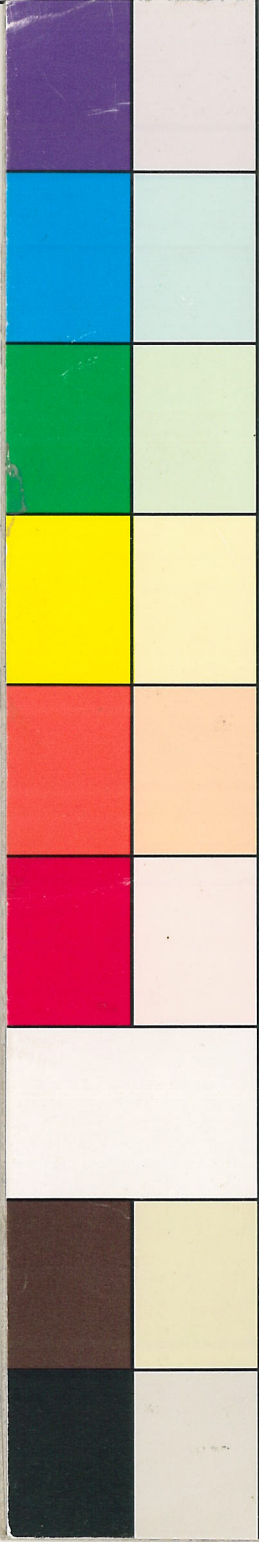
北京世界圖書公司

Inches 1 2 3 4 5 6 7 8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KODAK Color Control Patches © Eastman Kodak Company, 1977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 1 ) 인애의춘청

小悲劇 青春의愛人

朴 竣 約 作

런동은우루루 번개는번적 비는창대갓치쏘다저 적막한런디를뒤집는다며는하  
오열두점쯤되였는대 이팔가량된처녀한아이 비를쫓루룩맛고 춘천사과리(春川  
沙器里) 김의관집 대문을두다리며 사탄살니라고 소리를지른다

대저이처녀는 역시사과리사는 최춘보(崔春甫)의딸이니 양귀비의색래와 반  
첩녀의문장이며 룡옥의음률과 맹강의덕을검비하였슴에 춘보의부부 애지중지  
하야 일흔을빙심이라하고 빙심갓흔 쌍을어디 원앙의쌍류함을 보고자하더니  
춘보 우연이득병터니 자리에누어 이지못할줄알고 빙심의손을잡고 부인을도  
라보며

「여보마누라 빙심을 무남독녀로 귀히길너 나히지금 십오세라 가랑을어디  
원앙의쌍류함을보고 만년행복이나 누릴가하였더니 나는박복하야 못보거나  
와 마누라는 아모조록 택서하는대주의하시오 택서를 소홀이하다가는 빙심  
의평생을 그릇쳐주는거시오」하며 또빙심을보며

登錄	3154
分類	
分卷	
圖書	



「이애빙심아 너의모더러 지금한말은 드렸스려니와 혼인은 일륜대사이라 너 자의게당하야는 더욱소중하니 너도 주의할일이다 너더러이것이 할말은아 니다마는 너의모친이 지감이적음으로 일으는말이니 김히아비의말을 명심 하여라」

하고명이진하니 빙심의모녀 락동지동이야 엇지다말하리오 선산에 안장후 모 녀서로의지하야지내는대 사면에서 등호하는재답지하나 다거절하더니 맛침배 다리사는 리춘삼이라하는재잇서 부랑패류로 일군에유명하며 부여조의조업으 로 재산을몰쓰듯하여 어대던지 가인이있다하면 그여코 보고마는티이다 빙심 의성경을듯고 매파를보내여 백단으로 달내며 혹은위협으로하매 빙심의모 좋 니다못하야 빙심더러의론을한다

「이애빙심아 리장자는 일군에부자이라 네가그집으로시집가면 너도호감을 하려니와 나도만년에 고생을면하겠스니 허락하는거시 조홀듯하다」빙심이 모친의말을듯고 정색고하는말이라

「한번허락하고 못무르는것은혼인이라 소중이자별하거달 엇지부랑을각배의 게 허락하야 나종에뉘우침을 자취하릿가 부친림종시에 하신유언이 명々하 시오니 모친은단렴하소서」

「단렴을하라니 너는엇지하자는 주견이나 나히과년하면 그아니걱정이나 이 미말듯는것이 을홀듯하니 다시생각을하여보아라」

「저는결심한바이잇사오니 다시는말삼마옵소서」이갓치거절을하매 모친과매 파도엇지할수업서 다시말을아니한다 매파도라가 춘삼을보고 빙심의거절하 는말을 갓초일으니 춘삼이듯고 무명업화가 삼천장이나 일어나서

「응 부랑을각배라니 내나히이집에 처음당하는육인결 이분푸리는하고말니 라」

하고 동류수삼인을모호고 무삼일을 비밀히의론하더라 하로는덜렁으로 해는 너머가고 동편으로동근달이소사 원던디를조용히빚치더니 못미들손조화옹이 라해상으로후운이떠오르며 바람이지동치듯불더니 샅시간에 하날에후운이편 만하며 월색은운간으로 숨어바리고 번개는번적하며 락동은우루루 달구비는 눈을뜯수업시쏘다지니 로상에는 사람하나볼수업시되였다 이때춘삼이가 비쏘 다짐을보고

「올라 이때에 일을하면 누가한줄알나」

하고 이삼동류를다리고 비를마지며 사괴리빙심의집으로온다 이때마침빙심 이가 뒤간에잇스때 짐압호로 엇디한사람이오며하는말이



「이집이 최춘보의집일세 불문곡직하고 최춘보의딸만업고나오게」빙심이이 소리를듯고 삼작놀나며생각한다

「을치 이놈들이 재물도적이아니오 사람도적놈이로구나 내 여기있다가는저 놈의욕을면치못하리니 저놈들이안으로 드러가거던 피신을하리라」

하고 뒤간에은신하고 동정을보더니 춘삼등이 안으로드러감을보고 급히몸을 뒤동산송림중에 감추고있다가 다시생각하되

「내가 엽스물보면 저놈들이 사면으로수색을하리니 이를엇지할가 을타김의 관점은 일경에명망이자々하고 또겸하야나를 심히사랑하니 그리로가리라」

하고 즉시김의관점으로갓다 춘삼등이 빙심의집으로 드러가니 빙심은간대업고 빙심의모친만방에안젧다가 사람들이뛰여드러움을보고 혼비백산하야 소리를친다

「도적이야」

이갓치아모리소래를친들 적막한런디에 우뢰와비소래중에 어느누구가 아라드르리오 춘삼등은일점접합이업서 사면으로빙심을수색하되 거림자도볼수업다 「허허 이개원일인가 피신이곡할일이아닌가 이밤중에 어대를갓슬가」

하며 아모리차진들 김의관점에잇는 빙심을엇지차지리오 할일업시도라가니라

빙심의모친은 겁결에소래만지르다가 춘삼등이도라간후 빙심을 아모리볼너도 대답이업다 발을구르며

「에그머니 이를엇지하나 이놈들이 재물을탐하야온놈이아니오 사람을탐하야온놈이라 빙심이가 잡피여감이분명하니 어대가차질가 빙심의칼갓흔성미에죽고말것이니 에그머니 하나님마옵시샤」

하고밤을 눈물로새이더라 빙심은 김의관침문을두다리며 사람을살니라하매 김의관이 이소래를듯고 급히문을열고보니 한쳐녀가 비를맛고와서 사람을살니라하는지라 김의관이대경노괴하야문는다

「이김흔밤우중에 엇더한게집아해완대 사람을살니라하나냐」

「저는건너말사는 빙심이온대 집에도적이드러 피신코자왔사오니 하로밤만 피신케하야주옵소서」

김의관이 빙심이란말을듯고 급히안으로다리고 드러가며 부인안씨를부른다 「여보마누라 건너말춘보의집에 도적이드러서 살빙심이가 우리집으로 피신을하라왔구료」

안부인도역시놀나며 급히뛰어나와 빙심을잡아올니면서

「에구가업서라 빙심의집에 무어시잇다고 도적이들가 어서올나오나라」하며



을이여안천후 일변놀난가삼을 천청도식이고 일변저진옷을말니개하며문는다

「도적이 멧명이나들었스며 일어바린거슨업느냐」  
「재물도적놈갓흐면 무어슬먹자고 저의집을왔겟슴잇가 지가 맛참뒤간에잇스랴닛가 사람은멧천지 알수업서도 저의들하는말이 아모개 짚만업고나오라는 소리를듯사온즉 재물도적이아니오 사람도적놈이기로 제가댁으로도 망을하야왔습니다」

「에구고이한놈도만타 지금도 그악습을바리지안는구나 너의나히 지금열일곱이아니냐 드른즉 사면에서 흥흥을하는대 네가모다 거절을한다든구나 참한대가잇서서 시집가면 어느누구가 오날과갓흔불의에 행사를하라들겟느냐」빙심이 이말을듯고 량협이불거지며 고개를숙이고 수삼한말로대답한다  
「녀자가 한번시집가오면 일평생고락이 모다가장에게 달니엿사오니 만일건너말사는 리춘삼과갓흔대로 시집가오면 비록구복의 주림은업사오나 그인적이라하는거슨업시 금수와일반이되오리니 엿지경홀이 몸을허하릿가」하며  
밧글내다보며

「에그비가웨아니똥철가 어머니께서 나업스물보시고 그놈의게 잡피여간줄아시고 애를쓰실터인데 비가똥치여야 집으로도도가지」하고 애를 부딩

쓴다 안부인이 빙심의애씀을민망하야위로한다

「이애 너의어머니가 애는쓰겟지마는 지금비가을썬외라 열마아니잇스면 밧글터이니 날이나 밧거던가랴무나」

「에구 황송합니다 저로해서 쥬무시지도못하시니 이런불안할데가 어대잇슴닛가」

「하로밤 잠못자기로 관계가잇겟니마는 네가욕을면한것이 불행중다행이다」  
이갓치이약이하는동안에 서풍이슬々불며 하날에편만하던후운을 동해로쓰러바리고 태양은 구름을헛치고 부상으로소사을으니 사면청산에 록음은 저녁비에씨기여 더욱씩씩하다 빙심은 비가개이고 해가을음을보고 별덕이러서며

「불안을 만이제치여 황송합니다 일후다시와서되옵고 말삼을고하겠지요마는 아모리생각하와도 이곳에서는 못살고 다른골로가서 살가보오이다」

총々히인사를맞추고 짐으로도라온다 이때까지 빙심모는 한잠을일으지못하고 빙심을부르며 통곡하니 동리사람들이 그제야알고 빙심의집으로와서위문한다  
「빙심어머니 어느때에도적이 드렛드란말이오 도적이왔스면 재물이나 가져가지 사람까지 잡아갈것이무엇인가 그런대만히나일치아니하엿소」 빙심모는 우름을억제하고



「그놈들이 재물도적이지 아니요 인도적입디다 부직강이하나 아니가저가고 빙심이란업구료」동리사람들이 서로도라보며

「어는놈의짓일이 빙심의인물을탐해서 그리한것인데 필경타동사는놈의짓인 게로군 멧놈이나 왔서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는 그런동비소래에 전혀물나 구료」

할지음에 빙심이가 대문으로드러오며

「어머니」

하며 뛰여드러온다 빙심모는 죽엇던자식다시본듯 반가히뛰어나오며

「빙심이나 어대갓다오는야」

빙심이 다라드러붓들고 울며하는말이

「간밤에 얼마나 놀나셨스며 불초녀로 오작애를쓰섯겟슴닛가」

하며 지낸바일을 다갓초고하니 모친과동리사람들이 빙심의몸피함것을 칭찬 불이한다

「참 네가그러케 피신하였기에 욱을면하였지 만일집안에는신하였든들 잡피 여갈번하였다」하고 동리사람은 다간후 빙심이모친에게고하는말이

「여기있다가는 불량배에욕을면하기어려오니 강능외숙의집으로가서 의탁함

이조흔듯하나이다」

「외숙의집도 극빈한대 우리가 가서의탁하면 조와하겠느냐」

「가면자연조흔도리가잇사오니 가사이다」

「졸디에 무삼로수를가지고 간담말이나」

「로수는 내게얼마간잇사오니 부족되는것은 김의관집에가서 어더오리니 행 장이나 결속하소서」

빙심모는 빙심의하라는대로 의복등물을 부리나케 결속을하고 빙심은 다시김의관집으로가서 안부인보고 구하여준은혜를새로히말하며

「찾가도 말삼을고하였삽거니와 여기있다가는 불량배의 욱을면기어려웁기

로 강능외숙의집으로 가고자하오나 로수가부족되오니 수간두옥이나 마잡 으시고 돈오십량만주시면 형편보와 속속히환상하오리니 하대하심을바라나

이다」

안부인은 혼연히 오십량을주며

「내가 집을잡고주는것이아니오 너를그저부조삼아주는것이니 아모조록 몸 조심하야가거라 짐은바려두면 못쓰는것이라 내잘맛타두리니 일후다시와서 거접하여라」



빙심이 만만치사하고 즉시 집으로도 도와 두채 교군을 어더라고 급급히 강릉으로 갔다가 외숙이 춘천읍내로 이사하였다 함으로 다시 회정하야 읍내로 가더라 이때 춘삼은 목덕을 달치 못하고 분함을 못이 괴여 잊은 날아 참을 먹은 후 빙심의 집동정을 보고 자하야 이삼동류를 다리고 빙심의 집을 와서 본즉 집은 비었고 사람이 없거 날마음에 괴이하여 동리로 파의 주덤으로 드러가 술을 마시며 문는다

「여보고 주모 지금 오다가 드른즉 어제 밤에 이 동리에 불안당이 드러서 다니고 하일은 거나 업고 사람은 상치 아니하였나 듯기에 매우 놀나 운별」

「불안당이 아니고 사람을 잡어가라고 드렸더람니다」 춘삼이 거짓 놀나며

「응 사람을 잡어가다니 소년과 수가 잇서든가 그 악습이 그 저남아 잇군」

「과수도 아니오 출가전쳐 녀 람니다」

「저런 변보아 옛날에는 청상과 부는 후보쌈질을 한다 하지마는 처녀보쌈은 처음 듣는걸 그래 처녀가 잡피여 갔나」

「공교히 붓들여가지는 아니했셔요」 하고 김의관집으로 피신한 말이며 강릉의 속의 집으로 간 말을 갖초하니 춘삼이 다자세듯고

「불행중다행이로군」

하며 즉시 술값을 세음하여 주고 바로 선교로도 도와 오륙명동류와 단속을 단속히

하고 강릉대관령고개로 급히가더라 이때 빙심의 모녀는 교자에 몸을 담고 교군군의 다리틀비러 하로에라도 강릉을 당도코자하는 마음이 잇스나 엇지때사가 마음과 갖흐라 교군가는대로 내바려두고 압일을 품공이 생각하며 가는대 때는 육월염련이라 불갓흔 햇빛은 사정업시 내리 쏘이여 산천초목이다 축축느러져물 에 되천듯하니 허물며사람이라 교군군이 더위에 못이이여 땀은 비오듯하고 대관령험한길을 행하니 일리이리를 못가서 신다 빙심이 이거 동보고 길이란식하며 「사람은 일반인데 나는 무삼복으로 교내에 편히안져가고 이 교군군은 무삼일로 혼자가도 어려운길을 교자를 매고 가노 이것이 도모지 금전의 능력이로다 인생 출전이 어날 이런거슬 보면 돈나고 사람이 나지 아니하였나」

이와 갖치 무한한 감상이나서 길이 몹시 험하면 보행도하고 평관한데서는 타고도 간다 대관령겨우 넘어 해는 할디로 드러가고 달은 부상에 쏘사 울연이 비취인다 빙심이 자연이 겁이나서

「교군군 날이 저무니 어서 앞주막으로 가세」

하더니 말이 맞지 못하야 송림사이로 지탈썩 남자 오륙명이 각각 손에 흉기를 들고 소래를 벽력 갖치 지르며

「이놈 교군군아 교자거기 도와라」 하더니 다라 드러 교군군네명을 일시에 결박



하야 나무에 매여 죽고 그중에 건장한 두명이 빙심에 교자를 메고 자한다 빙심의 모  
친은 교자 밧그로 뛰어나와 빙심의 교자를 밧잡고 애걸한다」

「여러분이 재물이 나가 저가 되고 사람은 살너시면 이런은 헤가 업겟사오니 살  
너주오 살너주오」

하고 만단으로 애걸한들 소용이잇스리오 그중 한놈이 나서며

「우리는 재물 탐하는 사람이 아니오 사람을 탐하는 사람이니 로파도 갖치갑사다」  
보통사람이 이런 관경을 당하면 괴색을 하엿스런만 빙심은 온약담찬아해라 속  
으로 생각하되

「올치이놈들이 어제집이 왔든놈들이로구나 내가 가릉으로 갖다는 말을 탐문하  
고 조차온것인즉 내이놈의하는양을 보아 뒤방책이나 차리라」하고 소래를 돕  
혀말한다

「여러분이 재물을 탐하던지 사람을 탐하던지 인명이 지중하온즉 저교군군을  
푸러노시면 여러분가지는대로 가려니와 만일 풀어 놓치아니하면 우리모녀가  
이곳에서 죽을지언정아니갈터이오 이심산궁공에 그냥매여두면 사랑의밥이  
되지아니하릿가」

그중 한놈이 거절하며

「내말이 그럴듯하다마는 풀어주고보면 우리의 종적을 알지니 못될말이다」

교군군들은 이말을듯고 더욱황급하야빈다

「여러분덕분에 풀어주시면 바로도라가겟사오니 살너주옵소서」

하더니 덜미로쫓차 난대업는 총소래가 「탕——」한다 춘삼등이 샘작놀나 좌우  
를휘휘도라보는대 별안간춘삼이가

「에구구」소래를치고 산빛달에가모로떠러지더니 한사람이 어깨에총을되고  
산양개한마리를 압세우고 나서며

「이놈들 엇더할불안당이나」

하더니 불문곡직하고 지칼쓴놈만 총대머리로 합부로두다리니 다각기목숨을  
도망하야다라나더라 산양군이 다쫓차바리고 일변교군을 풀어노으며문는다

「내행은어대서오시며 어대를가다가 도적을만났나 여기는자래로백주에도도  
적이출몰하는대 하물며 이황혼에 내행을모시고 간단말인가」

교군군이 미처대답할사이업시 빙심의모친이 압흐로오며

「참 엇더한량반이신지 죽을사람을구하여주시니 이런대은인을 하날이지시  
하신가 하나이다 불감하오나 존성대명을 알고자하나이다」

「내성명은 차차알너니와 어대를가시는길이오」



「춘천사읍다가 녀식을다리고 강능본가로가다가 이권봉변을당하였사외다」  
「젊은짜님을다리고 가거던일직주막에드러쉬는거시조흔대 이험한길에 늦도  
록왜가시오 이압호로가는길이 동행이될듯하니 갖치가십시다 나는하귀방하  
을리용하야 산보겸작란삼아 명산을편답하는데 춘천읍사는윤이라하오」  
하고 교군군을재촉하야 압주막으로내려가 빙심의모녀는 안으로드러가고 윤  
은빛게서유숙한다 이때빙심이 윤씨의말을다듯고 처녀의몸이아니면 즉점으로  
말을하겠스나 처녀의몸이라 속으로생각하되  
「춘천사는윤이라하니 누구일가 명자까지 알엇으면아니조홀가 내게는잇지  
못할대은인인데」하고밤에 모친더러하는말이  
「어머니 윤씨는우리에 대은인인데 그명자를아니일너주니 래일이라도 명자  
를 다시무러보시오」

「은야 래일또무러보마」하고잇흔날 일직이러나 죠반을결결이작만하야 상을  
차리여가지고 빙심모가 친히가지고나와 윤씨의게 자알구한은혜를사례하고상  
을압헤노으니 윤씨이러나서상을바드며

「천만의말삼이지오 사람이위경당함을보고 구하는거슨 인도상에 셋셋한일  
이온즉 무삼대단한일이라 이처림말삼하시오」하고상을바다먹은후 주인을

불너 모든밥값을다세음하야주고 길을떠날새 빙심의일행도 따라나서니라

「어머니 윤씨가 또우리밥값까지 무러주니 남의신세를 저도분수가잇지요  
너무불안하야 견대겟슴닛가 후일갑던못갑던 성명이나 자세히무러보세요」

「은야 차차무러볼거시니 녀려말라」하고오십리쯤가더니 윤씨가압길을가라  
치며

「이길로가면 바로강릉으로가오니 부대평안이가시오」  
「나리는어대로가심닛가」

「네나 나는 이압산을구경하고가려면 잇흘동안이나 지체가되겟소 이압길은  
편々대로이라 위험한일은업슬듯하리다」

「지금자별하오면 또다시뵈을지도모르오니 귀함이나알너주시고가옵소서」  
「네 귀태여 일흥아실것업지요 춘천장아례사는윤이라하던지 대관령산양군

으로만아시구료」하고 다시말업시 산양개를압세우고 산중으로드러간다  
이때빙심은교자안에잇서 모친과수작하는말을드르며 그용모를명명히 가삼속

에사진박키여두엇더라 빙심의일행이 윤씨를접섭이리별하고 여러날만에 강  
능에이르러 외숙집을차지니 일년전에 춘천읍내로이사하였다함에 부득이하야  
다시춘천부중에 당도하야 외숙김호성을차지니 수삭전에 병드러죽고 모자랑



인은살수가업서 집을파라가지고 서울로올나갔다한다 빙심이이말을듯고 위연 탄식하되

「박명한이내팔자 엇지이다지박복하고」하고모친을도라보며

「어머니 박복한블초녀로 고생이자심하시니 죄사무석이올시다 그리하오나 일이이갓치되엿사오니 아직여기있다가 차차다시 변동을하사이다」

「서울로 올나갔다하니 서울로감이엇더하냐」

「살수가업서 서울간사람을 차자가면무삼소용잇슴닛가 우리는 서울이나 춘천이나 깍디는일반이오니 아직여기잇서 태두사를 다시의론하사이다」

하고집을하나어더든후 모녀유야로 침선방적을 부지런이하야 연명할새 이 러구려 수삭을지내니 동리에 빙심의칭찬이자자하며 더욱그인물을 흠선아니 하리업스며 또침선의묘법을일거른다 이럼으로 원근을물론하고 침선할재잇스 면 닥도아위탁을하니 자연생활의 곤란은업스나 사고무친한깍디에 모녀의심 사야오작하리오 모녀장탄단우로세일을보내더니 하로는 로파하나이침선감을 갖다유며 빙심모를쳐다보고

「마님 나는아모리 생각하여도 마님일을알수가업습디다 저런고는싸님을웨 파년 식키며 이런고생은아시오 싸님이식집가면 침선과방적할사람이 업서

못살갑아잡아두시오 애기갓흔 싸님을두고 무삼고생이잇슬가 그리하시오」 「나는붓들어 두고심혀서두겟소마는 제가마다고 고집을세셔 이고생을한다 오」

「조흔양재감이 하나잇스니 천기하릿가」

「가합한신랑이잇스면 소용잇소 제눈으로보와서 가합한사람이라야 식집가 겟다고고집을한다오」

「에그 망칙해라옛날말을드르면 혹신랑이 신부를천히보고 혼인하얏다는 말 은드릿지마는 신부가신랑보고야 식집간다는말은 처음듯겟구료」

「저야 그런생의나 먹엇겟소마는 저의아버지가 립종시에 망령으로 너의가 장은 네가잘가리여 식집가라고 한말을듯고 말을아니드르닌잔 원세음을 모 르겟소」빙심이엿해서 이말을듯고 붓그러은색이동하며

「두분은 그쓸대업는말고만두시고 다른말삼이나하시오」하고 말을잘나노으 니 로파가도로혀무색하야 도라가니라 빙심이가 로파를보내고 속으로생각 하되

「내 춘천서 몸을이리피함은 도시혼인이사자어늘 오날또이런소리가 귀에들 이니 또용신치못할싸이라 장차엇지하면조호고」하며 고개를숙이고 무삼생



각을한참하는데 밧그로 기생게월이가 드러오며 억개를 탁치고

「빙심아가씨는 일도아니하고 무삼생각을 이리하나빙심이 고개를들고 쳐다 보며 우습낫츠로

「괴생아씨오 무삼일로왔소」

「저고리하나 지를거시잇서 왔는데 한아지어주겟소」

「나의영업인데 업서서못하는데 가지고온거슬 아니하겠소」

「그런대 무삼일로수심이만면한가아마식집생각이나서 그리하는것이로군」

빙심이 이말을듯고 말연변색하며

「나는 평생을 규중에서 늙어죽어도 그대와갓흔류는아니로다」

게월이우으며

「웨 우리기생이야 엇더하기에하는말이야 기생의본분으로말하면 가무로 좌상빈객에흥치를도를 짜름이라 매진행음하는법은업스니 엇지 매음창기에비하랴 기생으로있다가도 합의한랑군이잇스면 기안에제명하고 식집가면 정절에 무슨관계가잇스리오 우리기생은 열인을만이하는사담에 사람의선악을 다아는고로 왕々이영웅군자를맞나 만년행복을 만히누리거니와 규중에있다가 부모의명령을 바다식집갓다가 사람을잘못맞나면 평생에비치못한고동과

박대를맞나니 엇지두렵지아니하랴」빙심이 일장설화를듯고 속으로「과연기생이라는거슨 매가때무오 령음은하지못하는법인즉 절개에는 방해가업슬거시오 또열인을만히한즉 인지선불선은 알기가쉬우리라」하고 은근히기안에 투명할생각이난다 눈치빠른 게월이가 빙심에 눈치를채고 썩인다

「나도 로모한분만 되시고지내갓섯는데 침선으로 생할한즉 골은골대로짜지고 하로밥두그릇이 너々지못하니 웃지사람사는본의리오 사람이한번고생하면한번은락이잇서야 만년행복이라는거시잇겟거날 그냥지내다가는 나종에눈어둡고괴력이쇠하면 아사를면치못하겠기 생강다못하야 기안에 투명한지삼년에 지금추수를 한삼백석하니 내만일 그저규중에 잇서든들 엇지오날행복이잇스랴 기생이라하면 다천하다하나 다제게달이엿나니 제행실이부정하면 로류장화로 로상행인이 다제서방이라할거시오 제행실만단정하면 그절개는런자라도 빼앗지못하고 가무만잘하면 왕후장상의 귀함을바들지니 엇지독々히 규중에서 썩는데대랴」

빙심이 듯기를다하고 또다시무삼생각을하더니 게월을쳐다보며

「가지고온저고리는 오날밤에 해서노을더이니 래일와서차저가시오」게월이가다시말업사인사하고가더라 빙심은 게월을보내고 한식경이나 잠々히 안젓



더니속으로

「내가 이번일이 고생같이나 행복의길이나 행복이고 고생이고 내자유로세 상구경이나 하리라」 이와 갖치결심하고

「어머니 지금계월의말을 드르셋지요」

「그래드렸다」

「나도 계월이가 되고심소」

「계월은계월이고 너는넌대 내가엇더케 계월이가된단말이나 알수업는말이다」

「어머니는 못아드르시는구료 나도계월이와갓치 기생이되겟다는말이에요」

「이애 그런소리마라라 이세상에 계월이 갓흔기생이 멧치나잇겟니 참 계월이 집을가보면 어느장자의집에서 그러케호강을하겟니 기생이 다계월이갓흐면 살나서 다기생노릇을 식기겟드라마는 엇더한기생을보면 말년에 방물장사가 제격이라더라」

「나도 계월이 처럼하리니 어머니 말이지마세요」빙심의모는 주견이업는자이라 계월이가 부러웁던차 빙심의말을듯고 속으로

「참 우리빙심이갓 계월이보다못하지아니하고 그용모와 재조가도로혀배승

하니 엇지계월이만못하랴 저하는대로 내여바려두고 이고생이나 면하리라 하고

「모르겟다 언제는 내가 내말을드렸는나 네고집대로하는데 네마음대로하려 무나야모리하던지 이고생만면케하랴무나」

빙심이 모친의허락을듯고 밤을새여 계월이저고 리를지여늑코 잇흔날 계월이 오기를고대하더니 아참후 계월이가오는대 행수기생 앵무와갓치왔다 서로인사후 계월이가 저고리를집어퍼보며 앵무를 도라보고하는말이

「행수형님 이저고리솜씨보오 엇지면 이러케 입부게지엿소」

앵무가 바다보며

「내갓멧달을 너의입은웃을보즉 옛솜씨가 아니더니 과연관료에 버서나지안는구나」이갓치 서로칭찬불이하는대 빙심이갓계월을보고

「그쓸데업는칭찬말고 내말이나하나 드러주시랴오」

「무슨말.....」

「기안에 투명하는 적식이엇더하오」

「웨 기생이되고심퍼서.....」

「이침선으로 살수업더니 어제하는말을듯고 나도가꼭이나 파라먹을가하오」



혹그이가잇슬가하야 지금것못놈의 괴롱을밧다심히하고 기생의몸으로잇슴  
이을시다 그사람의 은혜로말삼하오면 대관령서 썩죽을거슬구하야 죽엇사  
오니 그은해가 태산갓치아니함닛가?

「참나도그생각은 잇지아니한다마는 엇더케차자본단말이나」

「네 사람이 죽지안코보면 맞나는때가잇습니다」시비춘심이가 열해서듯더니

「아씨 대관령에서 누구를 만나세서 죽을길면하섯서요」

「웨 네가알면 알일이잇니 웨못느냐」

「네 소비가 드른일이잇서 엇주어보는말삼이올시다」

「무삼일을 드랏느냐 드른말을하여라 드러보자」

「다른일이 아니오라 아마 작년 그럭긴가보이다 읍내 율관관댁이잇사온대  
수천석하서는부자올시다 율관사내외분이 아다님한분만두섯는데 참금지옥  
엽보다 더귀히양육하시는중 고명하신선생이 오대산 월정사라는절에 게심  
을듯고 그리보내시여 공부를 이십짜지하케하신후 그럭게택으로 도라오시  
엿는데 그서방님이 부모를모시고 그간지낸 력사를말삼하시는소리를 듯사  
온즉 절에서택으로 오시는길에 강능경포대를 구경차로 강능을것쳐오는길  
에 황혼은되어 대관령을당도한즉 엇더한늠칠팔명이 지탈을쓰고 엇더한내

게월이가 앵무를 쳐다보며

「행수형님 인물이지만하면 더할것업지 우리기안에 룩명합시다」

하고 즉시기안에 룩명하니라 빙심이 부친사라잇슬때에 부친에게 음률과 서화  
를마니 공부하야야는중 다시연마를하니 빙심의총명으로 하나를드르면얼을똥  
하매 불과수삭이지내여 음률과서화로 일도내에 일흔이 자자하더라 이러무로  
수령방백과 부자자데들이부르니 자연생애너々하야 수년동안에 수삼백석을작  
만하매 유수한곳을택하야 가택을새로짓고 시비를두어 모친을봉양케하며 자  
괴는 매일연석에 참에하기골물무가하더라 하로는 빙심모가 빙심의 한가함을  
보고문는다

「이애빙심아 이제는 네나히 이십이불원하고 집안도이만하면 굶지는아니할  
터이니 참한가장이나택하고 기안에물너와 한가히 지내지아니하고 매일나  
무연석에서 음률로만세월을보내니 인제는고만두엇스면 조치안켓느냐」

「네 저도생각을하면 지긋／＼합니다마는 한가지먹은소회가잇서 어대서부  
르던지감니다」

「무삼소회란말이나」

「다른소회가아니요 춘청장더에윤이라하는이를보고자하야 어느연석이던지



행이교자를타고가는대 그놈들이 교군수를결박하고 두내행을잡아가라 할을 보고 분을참지못하여 지탈쓴놈은다쫓고 내행과 교군수는구하여보냈스나한 가지유감되는바는 지탈쓴놈중한놈이 몹시마저비탈에가 찌러젓는대 죽지나 아니하였는지궁금하외다 하는소래를 드렸사옵기로 엿주어 보는말삼이올시다

빙심이듯고 황연각지하며

「올라내말이 내가과연그때죽을길면하였다 그댁이어대이나 너는밤비말하여라」

「그댁이 지금어대게신가오 춘천에는 아모도아니게신데요」

「아니게시면어대를가시었나냐」

「서울로 올라가서사신답니다」

「서울은언제가시었나냐」

「서울은 서방님이 절에서오시기전에 먼저반이를하시고 령강에서는 서방님

오시기를 기다리노라 지체를하섯다가 곳을나가섯답니다」

빙심이이말을듯고 속으로 은근이괴탄한다

「내가 이삼년을두고 공연한 헛심념만드리고 남의업시역김만바덧구나 그러

면그렇치 수삼년을 그러케 은근히차저도 종적을알수업더니 과연그러한사답이로다」

하고 상경하기를결심하더니 슬푸다가 위홍안박명이라 이때 구감사는갈니고 덩씨라하는이가 신감사로 도임한후 하로는 한가함을리용하여 선화당에 소연을배설하고 부중기생을모와질글재 덩감사 모든기생중빙심을보니 폐월수화지래잇서 보던바처음이라 갓가히불너안치고 칭찬불이한다

「네용모를보니 추련명월이 벽공에소슴과갓고 창해명주를 옥반에바듬도갓도다 네나히지금얼마나되나냐」

빙심이 앵도갓흔입으로 수삼한태도를써고

「지금 십팔세올시다」

「네 부모가 구존하냐」

「자모시하로소이다」

「십팔세에 연어동작이 엇지하면 저다지속성하고 네무어슬잘하느냐」

「배운거슨업사오나 음률을대강집작하나이다」  
「감사흔연이 가야금을주며

「너는 이것으로 오늘날연석의 흥치를도으라」

하니빙심이 가야금을 바다들고 연보를음기여 좌상으로나가더니 섬々옥수로



주현을골나 한곡도를타니 대현은고상하고 소현은허령하야 월궁항아가 우의를 입을고 하날로서나리는듯 삼신산에서운이어리고 요디런태에 청도가날아들뜻하니 좌상이모다 후회등선할뜻하야 감사뜻기를다하고 칭찬불이하며못는다

「이곡도 무어시완대 이갓치청신한고」빙심이고개를숙이고

감사또한도를타라하니 빙심이줄을다시골나 한곡도를타니 그소래청렬정고하야 죽림에소슬한바람이 이는듯하야 좌상에찬괴운이사못친다 감재무름을치며 「이는무삼곡도를완대 사람으로하야금 정신이씩씩하고 마음이공고케하냐」 빙심이가야금을내려놓코 웃기슬염이며

「이곡도일흠은 백목단이니 신라때에지은거시라 그사실이괴이하니이다」 「그사실을말하야라」

「신라때 소애경이라하는녀자잇서 문장파지식이과연하더니 로씨의집으로출가하야 아달한아를낳코상부하매 소애경이 백모란에 마음을붓치여 매일물을주며 사랑하더니 애경의 시부가자기쳐더러하는말이 애경을본가로보내여 개가케하고 화초라하는것은 춘경이라 과거한상부로 가사에는함을아니쓰고 땃만사랑하니 그마음이곳지못함을 짐작하겠노라하거날 애경이 이말을듯고

후회하야 백모란에큰패를달고 그패에쓰되 이땃에수한을아는재잇스면 후사하리라하고 종로에노코 시비로수직케하엿더니 모다보고 비소만하더니 하로는 지리산도사 손사일이라하는니가 지내다보고 이땃에 수한이 불과삼일이라하니 시비가 급히도라와 애경에게고하니 애경이 즉시시비로 손도사를 청하야 외당에안치고 레단을갓초와 스승을삼아 선악을배오는데 그땃은과연삼일이되던날 의외에집웅에서 개와장이떠러져 화분이깨여지고 백모란이 죽으매 손도사 재로선악을지여 백모란이라하엿다고 지금껏전하나이다

감사듯고 더욱칭찬하되

「빙심은 음률만만잘하는거시아니라 가위다문박식한괴이한재조를가졌도다」 하더니 어언간 날이저무러 황혼이되매 감사모든기생은 다물녀보내고 빙심만 잇스라하고 석반을치른후 감사빙심을 침방으로 불너안치고 담화할재

「네 일직남자와 정의상동합이잇느냐」

빙심이 붓그림을먹음고 자리를 음기여안지며

「소녀비록천기오나 매신위업지아니하고 아모때던지 소녀의눈으로보와 마 음에 합한남자를만나기전에는 죽기로써맹세하고 허신치안코자하나이다」 감사웃고



「기생이라하는것은 로류장화로 영업을하거날 엇지저의마음대로하리오  
삼리사로 도취모산하며 매인열지하는것이 기생의복색이아니냐」  
빙심이낫빛을꽃치고 대답하되

「기생이라하는것은 좌상빈객에 흥치를도을싸름이오 매신행음하라는법은업  
사오니 옛말에일녘스되 할지아비와 지어미의뜻은 던자라도 빼앗지못한다  
하엿거날 아모리 일깨천기일지라도 잠은마음을 누가강탈하릿가」하며 사색  
이냉낙하다 감사 듯기를다하고 웃기를마지아니하며

「이애빙심아 네말을드르니 마음이대단고상하구나 노래나한마대하여라」  
빙심이응락하고 옥수로 단관을치며 주순을받개하고 여러가사를부르니 소래  
청아하야 공중에날니더라 아이오 야찬을을이거날 감사 빙심으로 수삼배를부  
으라하야 마신후 상을물니거날 빙심이 열골을화평히하고 조용히고하되

「소녀 몸이불평하오니 물니감을허하시면 명일다시대령하오리다」  
감사 잔잉이여기여 즉시허락하니라 빙심이 짐으로도라온후 자연마음이산란  
하야 잠을일우지못하고 뜬눈으로 밤을새매 빙심의모가 이동정을보고못는다  
「내가 전일에는 그런일이업더니 오날은 무삼일로 번민히지내느냐 어미된  
마음에 답々하구나」

빙심이 한숨한번을 길게쉬며

「어머니 오날 신감사 잔채에 참에하엿더니 삼사가 여차여차할적에는 흥다  
길소하온지라 이일로 심사가 자연번민하여서 잠이아니옵니다」

「드른즉 새로운감사가 세력도잇슬뿐외라 경성에는 큰부자라하니 만일감사  
가 너를애중히여기거던 감사의마음을맞추어 식집가면 그아니조흐랴 너는  
옛날고집을바리고 김히생각하여라」

「소녀는 세력도부자도아니바라고 인경하나만보와 식집갈터이올시다 기생  
삼년에 세력조흔자나 부자를못보앗겟습니가마는 다눈에아니차고 춘천윤이  
못이라야 가합하온대 지금것 못맞나는것은 아마도 여액이미진함인가보이다」  
하며 우민함을마지아니한다 이때감사 빙심을보내고 그아리싸온래도눈에잇서  
던々볼매타가 잇흔날중용히 세월을불너못는다

「이애게월아 내빙심을익기안다하니 제말과갓치 행실이과연고결하냐 자세  
히말하여라」

「듯사은즉 빙심은 본히기가의족속이아니오 평민의자식으로 춘천출생이온대  
아비일죽죽고 어미를의지하야사는대 동리부호들이 그자색을탐하야 강흔코  
자하오매 빙심이제모를다리고 읍내로온후 생도가극난하야 기안에투명하엿



스나 일절외간남자에게 허신한일이없고 가무만팔아 어미를 봉양하나이니  
다」감사듯기를다하고 칭찬하기를마지아니한다

「내빙심을보니 그만치절묘한인물이엿슬지니 제엇지남자에게 경솔이품을허  
락하리오 인물과마음이갓도다」

하고즉시 빙심을불너 분부하되

「빙심아 내가너를일시흥치로 수청을식기고자함이아니라 아조너를작첩하야  
평생을해로코자하오니 너의뜻은엇더하냐 무은직고하라」빙심이 얼골을다시  
곳치고말한다

「소녀비록무상하오나 엇지일호인들과망하오릿가 하날이나 부모나 다름이  
사오니 바라건대 망령의분부는 다시마옵소서」감사거짓로하며

「너―일향나의분부를 순종치아니함은 일등신정이흠々한애부가잇서서 찌러  
지기어려운곡절이잇슴이라 너만것은 내능히생살권을가졌노니 일후후회치  
말고 진시거행하라」빙심이올며

「소녀의행실을도사하사 기안에투명한후삼년에 만일남자와 일차간련이잇고  
보면 당하에백번죽어도 한이업겟나이다」

감나로기가대말하야 주먹으로 책상을치며

「네가 무엇으로생긴게집이완대 감하나의마음을씩자하느냐 당장엄형할거시  
로대 아직용서하노니 물너갓다가 다시명일대령하라」빙심이 다시깨구치못  
하고 집으로도라와 탈신할게교를 아모리생각하야도 방도가업스매 죽기로  
작정하니 눈물이새안솟듯하더니 거미구에 세월이와서위로한다

「빙심아 그대가엇지그리 생각이업나뇨 신삿도세서는 부귀공명이겸비하시  
며 인물도 출중하시거날 그대는무삼주견으로 그분부를거역하야 중형을자  
취코자하나 지금삿도에서말삼하시되 네나히어림으로 두서를모르고 고집  
하니 리해로달내여 회심케하라하시기로 이갓치말하오니 기쁘히생각하야이  
말을소홀이든지말지어다」빙심이 눈물을씻고 정색하며

「옛말에하엿스되 삼군의장수는 가히빠슬지언딩 필부의뜻은 빼앗지못한다  
하였나니 신감사 아모리생살권을가졌스나 엇지 나의잡은뜻을 빼아스리오  
열번죽드래도 맛당히당하리니 그대는부절업슨말말지어다」

세월이 다시할말업시 죽시도라와 감사에게고하니 감사대로하야 죽시좌괴를  
열고 행수기생벽도를불너 달초치죄하야 제죄를깨닫게하라하니 벽도즉시 빙  
심을불너 말석에안치고 벽도소래를놓혀하는말이

「빙심아말드러라 너는기생의품으로 지각이엇지드렸관대 막중삿도의분부를



거역하느냐 좌의를열고 달초로죄를증거하라하시기로 이갓치좌의를열었스  
니 너는우리를원망치말고 두다리를긋고 도라설지어다」  
빙심이조곰도겁없시 옥갓흔다리를긋고 태연히도라서니 벽도무푸레를골나잡  
고 심여차맹라하니 연한살이러지며 피흘너버선목에가득하되 빙심은 일호도  
겁함이없시서서있다 벽도다시수죄하되

「네하방천기로 교방에출입하야 이만한체면을알만하거날 감히삿도의분부를  
항거하야 일호두려함이없스니 방자함이엇지이갓치 래심하냐 너는즉시단장  
을재로하고 수청입시하되 래만치말지어다」빙심이 사색을변치아니하고 당  
돌이서서 소래를질너대답하되

「벽도야 귀에들너지아니하는말하지말고 어서나를맹라하야 목숨이썩진후마  
음대로할지어다 실낱갓흔호흡이라도잇고보면 그대에리치부당한말을듯고자  
아니하노라 내삿도의위령을 겁여옴게여기미아니라 내생각건대 삿도째서는  
일도방백으로 우호로군국을위하야 어진정사를베푸사 백성으로도라가의지  
할바를알며 상벌을분명히하사 선악을스사로매대게하실줄로아노니 엇지하  
방천기에 구々히잡은지조배앗기로 금선무를삼으시라 만일봉서치아니하시  
고 강제코자하시면 빙심은죽을싸름이라 무어시두려우라」

벽도어이업서하는말이

「이애빙심아 가련하고도가소롭다 수절이라하는것이 귀천이잇겟느냐마는  
수절이라하는거시곡절이잇서 가령절말한남편이잇는대 외인이갓탈을하다던  
지과부가되여 수절을한다던지 무삼일흥이잇서가지고 수절을해야 남이보  
고도칭찬하며 수절하는사람도셋々하지 너는아죽출가전규수일반이라 누구  
를위하야수절이나 삿도만되지면 수절여부업시 백년해로하고 행복이무궁할  
지어날 무삼수절이라하야 오는복을박차느냐 다시생각할지어다 한번만수청  
거행하면 부귀와영화로일평생을누리이니 그아니영광이나」빙심이 소래를더  
욱가다듬어대답한다

「벽도의말이 점々온당치못하도다 수절이라하는거슨 마음을긋게적키는것을  
일흥이라 너자되야 한번몸을그릇하다가는 평생을그릇하니 엇지경홀이몸  
을허하라 나는부귀와영화로 영광을아니삼고 정도로영광을삼노라」감사엇지  
경홀이몸을허하라함을듯고 더욱로하야하는말이

「이들랑방자한년아 너는죽어도한치말나」하고 관속을호령하야 잡아내라하  
니 건장한관속이달녀들이 빙심의팔을잡아나구게하야 게하에살란다 께일이  
보고 참다못하야 감사의압호로 나아가고하되



「빙심이 하방천생으로 사례에 몽매하야 저를 사랑하심만밋고 년천미거한 탓으로 죄를 범하였사오니 가래지마시고 저의 어미를 대령케 하야 리해로 설유하오면 빙심은 효녀라 어미의 말은 드를듯하오니 잔명을 살니시고 어미를 부르소서」

빙심이 대하에 엽대엿다가 계월에 말을듯고 계월을 쳐다보며

「빙심은 빙심의 죄로 죽으려니와 나의로모는 무삼죄로 벌을 당케 하느냐」하고 다시 감사를 쳐다보며

「죄는 소녀가 지은 죄라 소녀의로모는 아뭇죄업사오니 계월의 말삼듯지마시고 소녀를 어서 죽여 주옵소서」하고 고성발악한다 감사어이 업서 수로를 불너분부 하되

「빙심을 당장 타살할 것이로되 아직 용서하오니 옥에 내리가 두라」수로 등이 빙심을 착가 엄수하니라 감사 빙심을 가두고 계월로 빙심의 모를 불너오라하니 계월이 즉시 빙심에 모를 다리고왔거날 감사 열골을 화평이 하고 못는다

「빙심이 가 너의 딸이냐」빙심의모 행년칠십에 어느 관청을 구경하였스라 좌우에 관속이 느러서 위의 엄숙함을 보고 별々 썰며

「네—그렇습니다」

감사우스며

「너의 딸이 용모와 재질이 출중하기로 내 사랑하야 수청거행하라 하였더니 무단히 발악거역하니 그 죄죽엄즉하나 아직 용서하고 너를 불너스니 너는 잘효유하야 수청케하라 어미의말이야 순종아니하라 만일 내말도 순종치아니하면 너역시 중죄를 당하리라」

「일전에 대강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죽은 아버가 다시 살아와서 일너도 아니듯습니다」

「엇지하야 그릇한말이냐」

「황송하오나 바로고하리이다 괴왕하는말이 녀자의 팔자는 가장에 계잇나니 엇지 몸을 경홀이 하였다가 평생을 그릇하리오하고 부호가에서 흥혼함이 비일비재로되 일절거절하고 제눈으로보와 마음에 가합한사람이라야 허신한다하고 결심한일이잇사온즉 죽기외에는 다른도리업사오니 달니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대로하야 소래를 질너썩되

「자식되여 부모말을듯지아니하니 이는 제상에 용납지 못할 불효라 제어미몸에 중형이당하면 명색업는수절로 어미로고등을 밋게하라 잔말말고 곳가서



효유하라

빙심모할일업서 옥중으로가서 빙심의손을잡고 울며하는말이

「빙심아 이일이웨일이냐 당초에 어미말을드러 식집을갓더면 네신세도편하고 어미맘도이다 지태오지아니할결 엇지하자는소견으로 식집실라하고 기생에투입하였스며 기위기생에투명하였스면 매인열지할것이어날 너는무엇을밋고 감사의분부를거역하느냐」

빙심이웃기여올며하는말이

「소녀인들 생감이엿겟습닛가 일단먹은마음 어머니도아시지요 인명이재련이라 설마엇지하겠습닛가 지금비록당기어려운액이잇사와도 도로혀복될조짐이오니 모친은과히념려마시옵고 태두사나보시옵소서」

빙심모다시권타못하야 도라와감사를보고

「분부를밧자와 녀석을가보고 만단으로효유하오되 종래듯지아니하고 무삼주견인지 흘로를거영히출가치아니한다 고한사고집하오니 하날갓흔처분만바라나이다」

감사듯고 할일업서 빙심모는 도로보내고 속으로 무수히무삼공리를하더니속으로

「오냐 내부하에잇는 기녀한아를 억제치못하니 분함으로생각하면 리살이라

도와고십류나 청문이불호할터인즉 달리고등을주어엇지하나보리라」하고즉시 빙심의재산을몰수하고 궁벽무인처에 수간두옥을지은후 빙심을기안에제명하고 빙심의모녀와 시비빙심을거접케하되 하로조족한그릇으로연명케하고두어군사로 집을감시케하야 그동정을자조보하라하더라 빙심이천만의외에 출옥이되엇스나 궁벽무인처에 모녀와시비빙심으로 조한그릇을가지고연명하니 그고생이오작하리오마는 빙심은조곰도사색업고 태연이지내니 직헌군재탄복함을마지아니하더라 이리하야 수삭이지내후 정부의당과가갈니매 덩감사체임하여올나가니 빙심의집 직헌군사 빙심을보고

「인제는 기생아씨의 액운이 다진하였나보오」

「전자에는기생이나 지금은아니오 그런대무삼액운이 다하였다는말이오」

「감사제서 체임되여가시니 인제가 감금이될싸닭이되시오 인제는마음대로하시오 우리는부중으로가겟소」

「두분은길을아시니 가려니와 우리는길을모르니 동행하심이엇디하오 부중에가서후사하오리다」 군사쾌히허락하고 부중까지 동행하니라 빙심이엿잇던집으로오니 수삭동안에 퇴락한곳이만아 보기에심히감상이생긴다



「수삭동안에 짐이이처럼황폐하나 사람의물인들오작하라」하고 즉시계월을 차자보고 전일두호함을차사하고 자기의도지를조사하니 송곳박을쌍한아업을 몰수하여갓는지라 엇지할수업서 집을파라가지고 서울로나와 동대문밖계집을정하고 윤��판관집을찾더라 이때리춘삼은 대관령에서 빙심을강탈하라다가 의외에 포수를맞나 목덕을달치못하고마져서 빗탈에떠러진발미로 자리에누어 알을재 사람을춘천에보내여 빙심의소식을담문한즉 빙심이기안에투명한후 춘천부내에는 일등명기로 지목한다하거날 춘삼이속으로

「세상에별년도만타 부자의소실이실타하고 기생이되여 그역팔자인가보다그러나인물은과연똑똑한걸 이병이어서괘복이되여야 춘천가서 분푸리를할터인데이아니답々한가하더니 삼년만에야 왜차가되매 즉시이삼동류로작반하야 춘천으로와서아라본즉 빙심이 덩감사에 수청을거절하고 무수히 악형을 당한후 산중궁벽에 감금을당하였다가 감사가체임이되매 해방이되여 집을파라가지고 서울로갓다하거날 춘삼이한탄하되

「산양하는놈이아니든들 내가빙심을 늦칠필요도업고 삼년을병아를싸담도업슬러인데 도시산양군이 나의원수라 이놈을알수가있나 에라이놈은 성명도얼골도알수업스즉 이는공상이라 서울가서 빙심이나차져 나의한을풀니라」

하고 즉시서울로나와 두루담문하더라 이때빙심이 서울은지수삭이로되 녀자의몸으로 집안에잇서엇지차지리오 일々은한게교를생각하고 춘심더러묻는다

「이애춘심야 우리가집안에잇서서는 만날간들윤관관맥을 차질갈망연하니우리남복을입고나서서 광문하는수밖개업다」하고 남복을환착하니 일쌍미남자라 그인물을담아니하리업더라 하로는드른즉 성안성외에 활양들이 청룡사에모히여 편사를쏟다하거날 빙심이속으로

「사람마니모인데가면 알아보기가쉬우리라」하고 빙심을다리고 청룡당을당도하야 보니가위인산인해를일우었다 빙심이특음속잔되에안저 혈감을하며춘심과의론을한다

「이만코만은사람중에 우리가찾는량반은볼수가업스니 우리에게정성이부족합인지 서울아니게신것을 이러케공연히찾는지 어느냐 우리의목적을 달한단말이나」

「이인총중에 게신지도알수업지요마는 원체사람이만아 갓치왔던동행도 잘 못하면 일키가쉬웁겠는데 찾기를엇디게차집잇가」 하며 청룡당을 정신업시 바라보고 안젓는데 청년이삼명이 작반하야 압흐로



지내더니 빙심의량인을보고 한청년이 한사람에여배를타치며

「여보게 저괴소년들이안진것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글세복색은남자인나 외양을보면여자인데 여자라도 아주절묘한여자인걸」

한청년이나서며

「여자이니 남자인니할것잇나 인사한번만못치고보면알걸」하더니 빙심의압

해와안지며

「여보시오 처음뵈옵습니다 인사합시다」

빙심이가 만일려엄집쳐녀로 남복을하고잇다가 이런경우를당하면 수삼함을면  
치못하겠지마는 삼년간기생으로 열인을만히한터이라 조금도 수삼한태가업시

「네! 처음뵈옵습니다 뉘댁이신지요」청년이인사를못쳐눅코 뒤집어 성명을잡  
히매 어이업서한참유심이보더니

「네! 나는리춘삼이라하오 댁은뉘시오」

「네! 나는최춘식이라하오」

「말삼을드른즉 경성사람은아니신대 댁이어대시오」

「네! 지금살기는 동대문밖게사읍고 본집은춘천이올시다」

「춘천이시예요 반갑습니다 나도춘천사는대 가위 철리타향에봉고인시오」춘

천어대인가오」

「춘천읍내에서살다가 서울와서삽니다」

「서울오신지는 멧해나되며 부모께서는 다생존하신가요」

「서울은지는 수삼삭에지내지못하며 부친께서는 일직이별세하시고 자친만  
되시고잇사외다」

「춘천서 무삼일로 서울와서사시나요」

「자연생활관란으로 서울천척를차저왔습니다」

「서울천척은 누구신가요」

「춘천사든윤관과이신대 지금것차자뵈옵지를못하엿습니다 후리공께서 아시  
는지오」

춘삼이 윤관과이관말을듯고 동행의청년한아를도라보며

「여보게 춘천윤관관이 자네백부가아니신가」

「그러한데알수업는걸 춘천에는죽속간 아모도업는데 그누구일가」하며 그청  
년이빙심더러 또인사를청한다

「처음뵈옵습니다마는 윤관관과 죽척이되신다하니 윤관관은 즉나의백부가  
되시오 그런데 엇더케 죽척이되시는지 말삼하시오」